

이. 사. 람.

대통령상  
받은  
국제인쇄  
전광수  
차장

정부가 2005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사협력 및 생산성 향상 등에 공이 큰 근로자, 노조간부, 사용자 등 총 196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했다. 여기서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인쇄(주)(대표 정현수)의 전광수 생산부 차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 지기와 함께 한 국제인쇄 ‘보물’

## 17세에 인쇄업계 입문

전광수 차장은 1978년 1월9일 국제인쇄(주)에 입사했다. 그해 2월에 동의중학교를 졸업했으니 우리나라 나이로 17세에 인쇄업계에 입문한 것이다. 이때는 출판인쇄를 중심으로 하던 국제인쇄가 지기 분야로 사업을 넓히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던 시기로 자동튐스기 기사로 입사하게 됐다.

전 차장은 남다른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1984년과 1985년, 2년 연속으로 사내 근면상을 수상했으며 1996년에는 사내 모범상을 수상하는 등 회사 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1986년 11월 전국품질관리 표준화대회에서 국제인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그 당시 핵심적인 추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98년에는 대대적인 공장합리화 운동과 LGQA인증 획득 추진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현장 근로자들을 중심적 활동으로 이끌어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2004년 6월에는 ISO 9001 인증취득 테스트포스팀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인증획득의 공을 세웠으며 현재 내부감사원으로서 품질경영시스템의 안정화에 주력하는 등 국제인쇄가 걸어온 품질경영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전 차장은 국제인쇄에 몸담아온 27년 동안 품질향상과 생산성혁신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높은 책임의식을 실천한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 국제인쇄 지기 분야 최고 장인

전 차장의 국제인쇄 입사는 안학영 전 생산본부장과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동향(경남 의령) 선배인 안 본부장이 평소 눈



여겨보던 전 차장의 국제인쇄 입사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안 본부장은 지기 분야의 전문가였는데 전 차장은 그를 통해 지기 분야 기초부터 고급 기술까지 두루 전수받게 된다. 몇 해 전 안 본부장이 퇴임해 그 일을 전 차장이 물려받아 지금은 명실공히 자타공인 국제인쇄 지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났다. 안 본부장과 전 차장이 일 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같은 모습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을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

## 기술의 현장 적용 능력 탁월

국제인쇄는 기계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 등을 제조사에게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기계는 획일적인 환경에서 표준화되어 제작되지만 막상 적용되는 각 사업장의 상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효성이 인정될 경우 실제로 제조사들도 국제인쇄의 제안사항을 기계제작에 도입한다고 한다. 그만큼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제기계의 기계 이해도가 높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또한 전 차장은 얼마 전 국제인쇄의 기술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시켰다.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한 모(某) 제과회사의 아이스크림 포장을 국내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다. 아이스크림 용기였는데 접는 순서가 복잡하고 접착제가 아닌 열을 통해 용기를 접착해야하므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지만 전 차장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성공에 이른 것이다.

## 신기술 배우려는 도전의식 특히 강해

국제인쇄의 정문철 이사는 전 차장에 대해 “전 차장은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며 회사 일에 한결같이 성실이다. 또한 스스로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알며 신기술을 배우려는 도전의식이 강해 그 기술을 쉽게 터득하는 재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상욱 이사는 “근면 성실함은 당연한 것이고 책임감이 무척 강하다. 지기 설비에 관해서 100%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최고 전문가로서 국제인쇄의 첫째가는 장인으로 손꼽힌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애사심이 엄청나다”고 전 차장의 칭찬을 그치지 않았다.

## 후임 양성에도 더욱 힘쓸 것

이러한 경영진의 칭찬에 전 차장은 “윗분들이 잘해주고 배운 것이 너무 많아 국제인쇄가 가족같이 느껴진다. 27년간 쌓아온 ‘정’ 이랄까? 끈끈한 관계가 이제는 삶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한다. 처음에 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당연히 어려운 점도 많았다. 그런데 안 본부장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이번 상을 받기까지 추천해주신 경영진께 감사드리고 수상하게 된 것도 말할 수 없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제인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 본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임 양성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조갑춘차장>